

2023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학생 A가 쓰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김 교사가 진단하고 작성한 수업 일지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학생 A는 초고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이 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쓸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도 할 수 있으나, 머릿속 생각을 글로 풀어낼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에 표현하기 단계에서 초고를 작성하기 위해 학생 A가 사용할 수 있는 쓰기 전략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글쓰기보다는 말하기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된 (㉠) 전략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일단 써 보는 (㉡) 전략을 권해 봐야겠다.

2.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국어에는 같은 성질을 공유하는 모음끼리 한 어절 안에서 어울려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1) 잡- + -아서, 접- + -어서
 잡- + -았었- + -고, 접- + -었었- + -고

(2) 찰칵 ↔ 철컹, 풍당 ↔ 풍덩, 훌쩍 ↔ 훌쩍

(1)은 형태소 결합에서 어간 모음의 성질을 따라 어미의 형태가 결정되는 경우이다. 다만 어간 모음의 성질을 따라 어미가 선택될 때에도 모음의 어울림은 어미의 (㉠)에만 적용된다. (2)는 (㉡)에서 같은 성질을 지닌 모음들이 어울리게 하여 소리나 모양의 일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이다.

모음의 어울림은 적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다르다. 모음의 어울림이 형태소 결합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모음에 따라 문법적, 어휘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으나, (㉡)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어가 분화되고 어휘 의미도 달라진다.

3. (나)는 (가)에 대한 학생의 감상문이다.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시어를 (가)에서 찾아 쓰고, (나)의 밑줄 친 ㉡의 심미적 체험을 가리키는 용어를 1단어로 쓰시오. [2점]

(가)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떴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나)

나는 '눈'이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읽어 보았다. 찬찬히 살펴보니 '눈'으로 인해 존재들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눈'이 내리니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떴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과 어울려 시에서 어떤 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 같다. '눈'이 내림으로써 대상 자체가 변화함을 보여 주는 시어에는 '(㉠)'도 있다. 여기서 '눈'은 이 마을에 봄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 시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마치 내가 '샤갈의 마을'에서 '눈'을 보는 경험을 한 듯한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 시를 읽은 경험이 내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다.

4.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 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 내곤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데 산을 쳐다본다

- 노천명, 「사슴」 -

(나)

「사슴」은 본래성을 잃어버린 존재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사슴은 향기로운 관을 영화로웠던 과거의 흔적으로 지니고 있다. 슬픔의 근원적 원인에 해당하는 본래성의 상실은 '(㉠)'(이)라는 2어절의 시구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사슴은 '높은 족속'이었던 과거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점잖은' 고고함을 유지하고 있다. 타협을 거부하는 삶의 자세는 여전히 향기로운 관을 쓴 채 말없이 '모가지'를 들어 '먼 데 산'을 쳐다보는 행위로 드러난다. 이때 산은 사슴이 되돌아가고자 하나 그럴 수 없는 (㉡)적(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 전체에서 향수와 슬픔의 정서를 강화한다.

5. 문법 지식을 활용한 고쳐쓰기 활동과 관련하여 (가)는 학생의 글이고 (나)는 이 학생과 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4점]

(가)

나는 어릴 적부터 심부름을 즐겨 했다. 앞집과 우리 집은 왕래가 유난히 잦았고 나도 앞집에 다니기를 좋아했다. 우리 집에선 내 손에 음식 쟁반을 들려 앞집에 보내고 [A] 앞집에선 내 손에 답례를 들고 오는 식이었다. 마음 설레었던 짧은 여행이지 않았나 싶다.

(나)

교사: 기분 좋은 글이구나. 다만, 밑줄 친 [A]는 표현이 부정확한 것 같으니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고쳐 볼까? 먼저 [A]에 있는 '앞집에선'의 문장 성분은 뭐 같아?

학생: 주어로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부사어인 것 같네요.

교사: '앞집에선'이 부사어이면, 선행절에서 '우리 집에선'은 문장 성분이 뭐니?

학생: 주어예요. 이렇게 보니까 두 절이 서로 대등하지 않네요.

교사: 그건 [A]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보충하면 '[B] 나는 앞집에선 내 손에 답례를 들고 우리 집에 오는'이 되는데, 이 절의 '앞집에선'은 장소를 나타내고 '나'는 스스로 '들고 오는' 주체로 표현됐기 때문이야. 게다가 '우리 집에선'이 주어로 쓰인 선행절과는 달리 '(㉠)'이 가솔데없이 있는 듯해서 어색해.

'답례를 준 분들'을 주체로 하여 문장 표현 형식을 (㉡) (으)로 바꾸고, 선행절과 대등하게 대응이 되도록 [B]를 다시 고쳐 볼까?

학생: 그럼 '[C] 앞집에선 내 손에 답례를 들려 우리 집에 오는'으로 고치게 되겠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제가 나타내고 싶었던 상황이 좀 드러나네요.

교사: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는'의 '오다'는 '나'가 기준으로 삼는 장소 쪽으로 주체의 이동 행위가 있어야 해. 하지만 상황이 [C]와는 안 맞지 않니? '앞집에선'이 주어가 되게 해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하게 대응이 되도록 [C]를 고쳐 본다면 어떻게 바꿀까?

학생: 그럼 [C]를 '[㉢]' (으)로 고칠 수 있겠네요.

교사: 잘 고쳤다. 이처럼 문법 지식을 적용해 가면서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단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C]를 수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에 들어갈 표현을 쓸 것.

6. (가)는 김 교사가 실시한 토의 수업의 기록이고, (나)는 (가)를 자료로 수업 연구회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업 기록

■ 학습 목표

-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다.

■ 교수·학습 활동

[도입 단계]

-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이전 수업에서 다룬 학습 내용을 상기시킴.

[전개 단계]

- 교사가 토의에서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모둠 토의를 수행함.

[한 모둠의 토의 내용 일부]

사 회 자 : 지금 우리가 ‘학급 내 혐오 표현을 줄이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A : 교실에서 혐오 표현을 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 줘요.

참여자 B : 혐오 표현 줄이기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C : 혐오 표현을 쓰면 벌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해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해야 혐오 표현을 쓰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사 회 자 : 지금까지 혐오 표현을 줄이는 해결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 어떠한 해결안이 가장 좋은지를 정해 보겠습니다.

참여자 C : 제가 제시한 해결안이 실현 가능성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규칙으로 정하기만 하면 실현 가능하므로 최선의 해결안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B : 제가 혐오 표현 줄이기 캠페인을 제안한 것은 그것이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벌 청소는 벌만 받고 아무런 교육적 효과 없이 끝날 것 같아요. 혐오 표현을 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 주자는 해결안은 우리가 쓰지 않으려는 혐오 표현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으로 보여요.

참여자 A : 저도 실현 가능성 면에서 제 해결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 회 자 : 의견이 잘 안 모아지네요.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 토의에서 이 문제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사는 순회 지도를 하며 모둠별 토의 과정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모둠별 토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정리 단계]

- 교사는 모둠별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학급 전체 토의를 진행할 것임을 학생들에게 미리 알림.

(나) 수업 연구회의 대화록 일부

김 교사 : 이번에 토의 수업을 했는데요, 수업 중 모둠 토의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수행을 논의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이 토의 과정에서 최선의 해결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더 좋은 토의 수업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최 교사 : 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학습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김 교사 : 저는 토의의 각 단계별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토의 과정을 통해 경험해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학습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토의 수행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학습자들이 토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내고 어떻게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박 교사 : 자료의 앞 부분을 보면 학생들이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 해결안이 갖출 최소한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사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해결안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지요.

최 교사 : 그리고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 이후에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참여자 B’가 최선의 해결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해결안 검토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 하지만 모든 참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선생님 반 학생들의 모둠 토의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의 참여자들이 최선의 해결안 마련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김 교사 : 바로 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

- 밑줄 친 ㉠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참여자의 해당 발언을 인용하여 서술할 것.
- 밑줄 친 ㉡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쓰고, 이를 근거로 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도할 학습 활동 1가지를 서술할 것.

7. (가)는 김 교사가 정리한 학생 A의 독자 프로파일이고, (나)는 독서 태도에 관한 교사 연수회의 강연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독자 프로파일 : 학생 A(중학교 1학년)

영역	평가 방법	결과 요약
독서 기능	오독 분석	•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글을 적절한 속도로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음.
	독해 질문	•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전개 순서 등을 이해함. •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지 못하고, 숨겨진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글에 암시된 주제와 생략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
독서 태도	수업 관찰	• 교실 전체 수업에서 조용한 편임. • 독서 토의에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글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함.
	비형식적 상담	• 독서 모임에서 이해하기 쉬운 글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함.
	자기평가	• 전반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임. • 특히 책에 30분 이상 집중하거나 적극적으로 책을 찾아 읽은 경험이 거의 없다고 반응함.

(나) 교사 연수회의 강연 내용

읽기 수업 중에 어떤 학생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때론 글 읽기를 아예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어와 문장을 못 읽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모든 아이들이 독서에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 독서를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수준의 독해, 즉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독서 수업에서 오가는 질문들은 사실적 독해를 넘어 많은 경우 추론적 독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추론적 독해가 어려운 학생은 이런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때 학생 스스로 '나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학생의 독서 태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지요. 그러니 수업 시간에 조용한 아이들이 그저 글 읽기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런 상황의 원인을 학생의 독해 능력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독해가 어려운 학생들은 우리 교실에서 언제나 조용한 독자로 남아 있어야 할까요? 책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스로 책을 찾지 않는 독서 태도는 어떻게 해야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수업을 하면서 이 점에서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저는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적극적 독자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독서 지도 활동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해야 이러한 긍정적 독자의 모습이 발현될 수 있을지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서는 혼자 읽을 때보다 적은 부담으로

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독서 지도 활동이라도 글이 어려우면 여전히 학생에게 어려움이 남습니다. 가령, 학생이 독서 토론에서 너무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쉽게 읽되, 깊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나)를 근거로 (가)의 '독서 기능' 영역에서 알 수 있는 학생 A의 독해 능력 수준을 2가지 제시할 것.
- (나)를 근거로 학생 A에게 적합한 독서 지도 활동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2가지를 (가)의 '독서 태도'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할 것.

8. 다음을 읽고, 준말과 관련한 음운 현상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한글 맞춤법의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이러한 대원칙에서 ‘소리대로 적되’와 ‘어법에 맞도록’은 두 개의 다른 원칙으로서 상충되는 성격을 가지며, 어느 원칙을 우선으로 하느냐는 세부 조항으로 규정한다. 문법 형태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고 규정하였지만 일부 준말의 경우에는 다음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준 대로 적는다. 준말이 될 때에는 운소 층위에서 대부분 장모음화가 일어나며 음소 층위에서도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 기어 → 겨[겨:]
- ㉡ 놓아 → 놔[놔:]
- ㉢ 주어 → 쥐[쥐:]
- ㉣ 가지어 → 가져[가져]
- ㉤ 쓰이다 → 썩다[썩:다]

[A] 그러나 준 대로 적는다고 해서 모두 다 소리나는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니다. 준말 중 국어 음소와 음절 등의 배열에 작용하는 음운론적 제약에 의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다른 준말과 일관되게 적도록 하였다.

<작성 방법>

- ㉠~㉤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음소 층위의 음운 변동은 무엇인지 쓰고, ㉠을 예로 하여 음소가 변동된 양상을 서술할 것.
- [A]를 참고하여 ㉡, ㉤에 적용된 음운론적 제약을 음소(또는 음절)를 밝혀 각각 서술할 것.

9. 다음을 참고하여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교체와 표기법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중세 국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이 어미의 교체 양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조건을 알면 어간에 따른 결합형을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중세 국어 8중성 표기에 따라 다른 자음으로 표기되는 경우, 원래 어간 발음과 표기된 발음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세 국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교체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어간 발음이 모음 혹은 ‘ㄴ, ㄹ, ㄷ’이면 ‘-습-’으로 교체
- ② 어간 발음이 ‘ㄷ, ㅈ, ㅊ’이면 ‘-줍-’으로 교체
- ③ 어간 발음이 ‘ㄷ, ㅈ, ㅊ’ 이외의 자음이면 ‘-습-’으로 교체
- ④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발음이 ‘빙’인 형태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발음이 ‘비’인 형태로 교체

위 교체 조건을 참조하면 ‘머리 조사(머리 조아려)’라는 구절에 결합하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8중성 표기에 따라 어간이 ‘쫓-’으로 표기되어도 어간 발음이 ‘ㅅ’인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중세 국어 문헌에 나타난 예를 보인 것이다.

○ 如來스기 현맛 衆生이 머리 ㉠ 쫓스바노 <월인석보 권2>

그런데 원래 어간 발음이 ‘ㅈ’이나 ‘ㅊ’인 경우는 원래의 발음과 표기된 발음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결합하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다음 예를 분석해 보자.

○ 夫人이 닐오더 “그러커든 나도 大王 피스바 比丘 쫓즈바 가리이다.” 王이 夫人스 말 드르시고 …… 夫人과 ㅎ샤 比丘 조츠샤 西天國을 여회여 竹林國애 가샤 <월인석보 권8>

위 예의 분석을 통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가 원래의 어간 발음과 표기된 발음 중 (㉡)을/를 기준으로 교체함을 알 수 있다.

—<작성 방법>—

○ 밑줄 친 ㉠에 결합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교체 조건을 ①~④에서 2개 골라 번호로 쓰고, 이 선어말 어미의 형태를 밝혀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이에 따라 중세 국어 ‘ㅃ’과 ‘-고’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켜 그 결합형을 8중성 표기에 맞게 쓸 것.

10. 다음을 읽고, 시조의 창작 맥락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태종[이방원]이 연회를 열고 정몽주를 이르게 하였다. 술판이 거나해지자 태종이 술병을 들고 세속의 노래 1수를 지어 회유하며 노래하였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 만수산(萬壽山) 드렁칫이 얹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 『순오지』 -

(나)

고려 조정을 장차 혁파하려 할 적에 태종[이방원]이 재상들을 맞이하여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 노래를 불러 제공(諸公)의 뜻을 시험하였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 성황당 뒷담장이 무너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죽지 않음 어떠리

그러자 정몽주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변안열(邊安烈)이 정몽주에 이어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A] 내 가슴에 말[ㅅ]만한 구멍 뚫고
 길고 긴 새끼줄 꿰어
 앞뒤로 끌고 당겨 갈고 쓸지라도
 네가 하는 대로 내 마다치 않겠으나
 내 임 빼앗고자 한다면
 이런 일엔 내 굽히지 않으리라

- 『대은선생실기』 -

(다)

가슴에 구멍을 동시렇게 뚫고 원새끼를 눈 길게 너숫너숫 꼬아
 그 구멍에 그 새끼 넣고 두 놈이 두 끝 마주 잡아 이리로 홀근
 저리로 홀적 홀근홀적 할 적에는 나남죽 남대되 그는 아모쪼록
 견디려니와
 아마도 님 외오 살라 하면 그는 그리 못하리라

- 『청구영언』(진본) -

—<작성 방법>—

○ 창작 맥락을 고려할 때 밑줄 친 ㉠, ㉡에 함축된 의미를 비교하여 설명할 것.

○ [A]와 (다)의 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11.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서생 놈을 칼을 썬위 하옥하라.”

사령이 형리의 분부를 받고는 큰칼을 썬위고, 그 몸을 검은 포승으로 묶고, 수족(手足)에다 차꼬를 채워 갔다. 서생을 모시고 따라온 쥐들은 일시에 슬피 탄식하고, 길가에서 보는 자들은 크게 비웃지 않은 자가 없으니,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다. 사령이 데리고 가서 옥졸에게 넘겨주자, 옥졸이 옥에 끌고 들어가 단단히 가두고 나서 ‘돈 내라.’고 괴롭히니, 서대주는 가지고 온 물건을 옥의 수졸(守卒)에게 많이 주었다. 수졸들이 매우 기뻐하고는 큰칼을 풀어 편히 쉬게 하면서 마치 부리는 하인처럼 돌봐 주니,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서대주가 피로에 지쳐 누워 있는데, 대서(大鼠)는 그 손을 주무르고, 중서(中鼠)는 그 다리를 안마하고, 동서(童鼠)는 그 허리를 밟으며 대주의 심란한 마음을 위로하고 약간의 대추와 밤 등속으로 시장기를 면케 하면서 밤을 새우니, 보는 자가 움켜잡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날, 원님이 심문할 채비를 크게 차리고는 둘 모두를 잡아들여서 동서로 나누어 꿰어앉히고, 고소장에 근거하여 크게 꾸짖었다.

…(중략)…

“마침 사냥하러 나갔을 때, 소토산 원편의 용강산 기슭에서 만나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그 행실머리 없음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후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얹어매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피했으니,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맹랑하고 무뢰한 놈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매우 졸렬하기는 하지만 역시 대대로 공훈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무도하고 못난 놈한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하여 선조의 공훈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란스럽게 하오니,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옵니다.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엎드려 바라건대, 사정을 살피시어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서대주가 옷설을 고쳐 여미며 단정히 꿰어앉았는데, 뽕죽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작거리면서 두 손 모아 슬피 빌고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니,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원님이 서대주의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말마다 사리에 꼭 들어맞고, 형세가 본디부터 그러하여 죄를 주기도 어려워, 결박한 것을 풀고 썬 위 큰칼을 벗겨 주고는, 술을 내려 주어 놀랜 바를 진정케 하고 특별히 놓아주었다. 타남주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소송을 한 죄로 몽둥이 세 대를 맞고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귀양을 가니, 서대주가 거듭거듭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갔다.

후에 서대주가 수백의 여자를 취하여 자손이 번성하니, 주군·현읍·여항·향곡에 살지 않은 자가 없고, 그들은 다 도적질을 하여 살았다. 이에 세상의 어린 아이들, 부녀자들, 종들이 쥐를 만나기만 하면 모두 죽이니, 서대주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해친 것에 대한 응보가 아니겠는가! 반면 타남주는 본래 선량하

고도 곤은 부류인지라, 비록 매우 지극한 원통함을 겪고도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고 돌아갔는데, 장성의 화원(花垣)에 번성하게 사는 자손들이 나무 열매만 먹고 화곡(禾穀)은 축내지 않게 했다. 이에 사람들은 간혹 다람쥐를 보면 예뻐하지 해치려는 뜻이 없으니, 실로 이는 타남주의 음덕에 대한 보답이리라. 이로 본다면, 덕을 따르는 자는 창성하고, 덕을 저버리는 자는 망한다는 것은 실로 거짓말이 아니다.

대저 서대주는 간사한 말과 뜯소문으로 교묘하게 원님을 속여서 죄가 있었음에도 죄를 면하고, 타남주는 성품이 곧아서 변명을 하지 않아 죄가 없었음에도 죄를 받았으니, 원님의 송사 처리가 어찌 그릇되지 않았으랴! 대개 송사 처리는 이같이 어려우니, 벼슬을 하는 자가 살피지 않으면 옳겠는가!

- 『서대주전』(한문본) -

<작성 방법>

- 서술자의 개입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의 첫 어절을 쓰고, 그 비판 대상을 밝힐 것.
- 송사에 나타난 당대 사회 현실의 부정적인 단면을 2가지 찾아 쓸 것.

12. 다음을 읽고, 작품의 형식적 특징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몸을 웅크리고 가마니 속에 쓰러져 있었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돌덩어리처럼 차다. 허영게 흠뻑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움 속, 서너 길 높이에 통나무로 막은 문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귀퉁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 된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매한가지지, 하고 사닥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익다.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射手)를 향하여 방이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뺏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닿지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소. 출신 계급을 타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뿐이오.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한 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거요.

몽롱한 의식 속에 갓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부서지던 눈, 그리고 따발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앞장서 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움 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속에

[A]

삼삼히 아른거린다. 한 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독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종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지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찌면 놈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흘랑 빨가 벗겨서 건계 할지도 모른다(찢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색깔이 제 빛인 미(美) 전투복이니까……). 나는 빨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가니 얼어서 흰 독길을 걸어간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이윽고 붉은 피가 하이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 간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 매고 본대로 돌아들 간다. 발의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들 갈 테지.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겐 모두가 평범한 일들이다.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 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 영원히 목살되어 묻혀갈 뿐이다. 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추위 탓인가……. 귀퉁한 냄새가

또 코에 스민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꼭 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북으로 북으로 쏜살같이 진격은 계속되었다. 수차의 전투가 일어났다. ㉡ 그가 인솔한 수색대는 적의 배후 깊숙이 파고들어 갔다. 자주 본대와의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다.

[B]

초조한 소대원의 얼굴은 무전사에게로만 쏠려 갔다. 후퇴다! 이미 길은 모두 적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적의 어느 면을 뚫고 남하할 것인가? 자주 소전투가 벌어졌다. 한 명 두 명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될 수 있는 한 적과의 접근을 피하면서 산으로 타고 올랐다. 기아와 피로. 점점 낙오되고 줄어 가는 소대원, 첩첩이 쌓인 눈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방향을 더듬으며 온갖 자연의 악조건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 오상원, 「유예」 -

(나)

1950년대 '신세대' 작가들은 소설 창작에서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극작가로도 활동한 오상원은 소설 창작에서 영화의 표현 기법을 적용하였다. 영화의 몽타주는 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보여 주지 않고 따로따로 촬영된 샷(shot)들을 결합하여 보여 줌으로써 새롭거나 종합적인 의미를 창출하는 기법이다. ㉢ 몽타주는 「유예」와 같이 인물의 의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소설에 흔히 적용된다.

<작성 방법>

- 인물의 의식에 떠오른 장면들의 구성에 주목하여, (나)의 밑줄 친 ㉢가 [A]에 구현된 양상을 쓰고, 그 적용 효과를 설명할 것.
- (가)에서 밑줄 친 ㉠과 ㉡이 동일 인물임을 고려하여 [B]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를 설명할 것.

<수고하셨습니다.>